

일반  
 논문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김명희 \_건국대학교

논문요약

한국 과거청산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수정주의 혹은 부인주의(denialism)의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역사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의 새로운 모색을 요청받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웹툰 <26년>을 중심으로 5·18 부인의 문화에 편입된 관계적 행위자들의 감정동학과 그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분석틀로는 기존 가해자-피해자 이분법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5·18 유가족(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방관자, 방어자 등의 다층적인 행위자 범주를 아울러 고려하는 생태적 접근을 도입·제안했다.

이 연구가 한국 이행기 정의 과정에 제기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26년>은 첫째, 5·18 책임자 처벌의 과제가 현실 정치로는 해결되지 않고 2세대 자녀들의 응보적 정의를 통해 재·해결의 국면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딜레마를 드러내는

\* 이 글은 2016년 3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51차 사회인문학 포럼 <감성과 생애 성찰>에서 발표한 “이행기 친밀권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정한 것이다. 토론자로서 귀한 논평을 해주신 계명대학교 자넷 리(Janet Y. Lee) 선생님과 생산적인 수정 제안을 해주신 의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동시에, 옹보적 정의의 참된 실현이 사회구조적 행위자들의 성찰에 입각한 관계회복과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는 옹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연동되어 있는 중첩된 과제를 시사한다.

둘째, 방법론의 측면에서 공공 기억의 한 형태인 웹툰 <26년>은 5·18 부인 구조에 상호 연루되어 있는 관계적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끝나지 않은 5·18’의 현재성에 대한 성찰적 공감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이로부터 이행기 정의가 고통 받고 있는 타자(들)와의 지속적인 대면을 통해 수행되는 변증법적 과정임을, 따라서 사건과 사람, 그 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해당 공동체에 전달하고 재현하는 ‘매개자’, 즉 수행 집단(carrier group)의 교량적 역할이 역사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요어: 이행기 정의, 웹툰 <26년>, 역사커뮤니케이션, 공공 기억, 5·18 부인의 감정생태계

## 1. 세월호 그 이후, <26년> 다시 읽기

5·18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외상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된다. 5·18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시민들이었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따라서 역사로서의 5·18은 이들의 집합기억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언론 또한 5·18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5·18의 역사적 진실이 역사수정주의와 부인주의(denialism)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공적 담론에 피해자들

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념일 저널리즘은 현재의 정치권력과 그들이 참석하는 행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5·18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하다.<sup>1)</sup> 나아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베 등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인과 같은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denial)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일러준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청산 작업이 단순히 사건과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적 차원을 넘어 국가폭력이 가능한 사회구조에 대한 통찰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김보경 2014, 328-329).<sup>2)</sup>

〈26년〉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26년〉은 2006년 4-10월

- 
- 1) 실제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5월 한 달 동안 보도된 5·18 관련 뉴스는 KBS 52건, MBC 58건, SBS 59건이었는데, 이 중 5·18피해자들과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KBS 3건, MBC 2건, SBS 3건 총 8건으로 전체 뉴스의 4.7%에 불과했다(주재원 2015, 26).
  - 2) 부인의 정치사회학을 다룬 코언의 원저 *States of Denial*에는 '부인하는 국가'라는 뜻과 '부인하는 상태'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다. 즉 ① 인권침해의 가해자이면서도 그런 행위를 부인하는 국가(와 가해자들)와 ② 인권침해와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일반 대중의 경향이라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코언 2009, 19). 과거청산의 부인은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특정한 역사적 계기가 형성되었을 때 일어난다. 예컨대 2004년 초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7월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논쟁, 2004년 17대 국회 구성 이후 지속된 4대 개혁입법으로 인하여 진보-보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부인 담론 형성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2007년 대선정국에서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개봉, 이명박 후보 '광주사태' 발언으로 5·18 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이 거세게 제기되었다(김보경 2014, 352).

다음(daum)에서 연재된 웹툰으로,<sup>3)</sup> 교과서에 몇 줄로 적혀 마무리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와 감정의 영역에서 재생산되는 ‘끝나지 않은 5·18’의 역동을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한 픽션(fiction) 만화로 <26년>은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김갑세라는 인물과 그의 아들, 그리고 도청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시민군의 자식들이 1980년 5월 그 날로부터 26년이 지난 이후, 법이 응징하지 못한 학살의 ‘전범’ 전두환(그 사람)을 사적으로 처벌하고 단죄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만화의 새 지평을 연 ‘웹툰 1세대 작가’인 강풀은 영화 <26년>의 개봉을 앞둔 한 인터뷰에서 처벌 없는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흐름에 “문화적 처벌”을 내리고 싶었다는 의도를 밝힌바 있다(최유빈 2012, 28). 이 글은 웹툰 <26년>을 중심으로 한국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sup>4)</sup> 과정의 심층에 자리한 관계적 행위자들의 감정동학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성립하게 된 배경을 두 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

---

3) <26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중에 29만 원뿐”이라는 말에서 만화를 구상해 2006년 4월부터 연재되었고 2008년부터 영화화가 추진되어 우여곡절 끝에 2012년 개봉되었다.

4) 이행기 정의는 과거청산 국면에서 작동하는 정의(justice)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치변화 과정의 일부로서 과거의 정치적 폭력을 다루기 위한 노력”(Leebaw 2011)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이행기 정의의 실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세계사적 흐름이다(이재승 2010, 29).

다. 첫째,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전사회적인 부인(denial)과 망각 국면으로의 퇴행을 목도하면서 절감한 ‘사회의 위기’, 혹은 ‘사회의 침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 점에서 참사 이후 진행된 정부, 친위세력, 매체들의 ‘희생자 다시 때리기’와 부인 행동이 ‘참사 후 국가범죄’이자 ‘국가·사회범죄’의 특징을 보인다는 통찰력 있는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5)</sup>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가 우연히 일어난 문명 속의 참사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에 눈이 멀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이 글은 그 질문에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회적으로 답변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감정생태계는 개인주의적 감정이론의 한계를 넘어, 특정 사건이 자리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적 행위자들의 감정의 자장과 그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이다. 문화적 기억의 한 형태로서 <26년>은 국가폭력의 재생산 국면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적 행위자들의

---

5) 이재승은 세월호 참사를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범죄로 규정한다. 첫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의 측면에서는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감독책임의 총체적 방기와 선박운항 책임에서 기업의 부패가 결합한 ‘국가·기업 범죄’이다. 둘째로, 해경 및 구조본부의 조직적 부작위는 전형적인 국가범죄에 해당한다. 셋째로, 참사 이후 상황에서 정부, 친위세력, 매체들의 ‘희생자 다시 때리기’와 부인행동은 ‘참사 후 국가범죄’, 특히 ‘국가·사회범죄’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이재승 2016).

감정 매트릭스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열어준다. 통상 장기화된 국가폭력은 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방관하는 보통 사람들 – 아렌트가 말한 ‘우리 안의 아이히만들’ – 의 행위 없이는 재생산되지 않는다. 이 행위의 구조를 관계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나’와 ‘그’가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사건의 재생산에 의식·무의식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 행위자(agency)임을 깨닫게 하고 ‘연루’의 구조를 성찰할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중요한 행위자 범주로 부상한 목격자·방관자, 유족, 가해자(대리자)의 범주와 그 상호작용에 주목할 것이다.<sup>6)</sup>

둘째, 이 연구가 굳이 “웹툰” (26년)을 매개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회의 위기’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함께 가시화된 ‘역사의 위기’와 분리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향적 모색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점에서 역사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경로를 제안하는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역사수정주의는 과거의 이해를 ‘수정’할 뿐 아니라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공의 의식 속에서 말살하고자 하는 ‘말살의 역사학’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역사서술방법론의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는 바, 서술이 어떻

---

6) 후술하겠지만 목격자·방관자의 존재가 이 글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까닭은 국가의 인권침해는 이들의 침묵과 무관심 없이는 은폐될 수 없기 때문이다(김명희·김왕배 2014, 17).

게 다른가에 따라 현재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대하는 책임의식도 달라지고 책임을 지는 방식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교과서를 둘러싼 논의가 모조리 교과서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러니를 예리하게 지적한다(모리스-스즈키 2006, 31). 공식적인 학교 역사 교육의 내용을 주로 문제 삼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교 역사 교육이 역사인식을 결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시디롬, 만화, 인터넷 등 기존의 서술형식을 따르지 않는 대중문화는 공공의 기억(public memory)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과거를 이해할 소재를 길어 올림으로써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모리스-스즈키 2006, 27-35).

이로부터 공공 기억(public memory)의 매체로서 웹툰이 가진 잠재력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공공 기억의 아이디어는 멀리는 20세기 초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 Halbwachs 1980)의 연구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모든 기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라는 전제를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가족 및 사회 집단들이 시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공유하는 사건들에 대해 공통 관점을 합의할 때 공공 기억이 나온다.<sup>7)</sup> 웹툰 또한

---

7) 최근 사회적 기억 연구는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과 공공 기억(public memory)의 용법을 구분한다.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은 개인들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 기억할 때 발생한다. 캐쉬(2004)의 표현에 따르면, 집합 기억은 “서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거대한 수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Casey 2004, 23-24). 이와 달리 **공공 기억(public memory)**은 사

뉴미디어의 한 형태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개입(재현)과 매개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을 남긴다. 즉 “타인들이 겪는 고통의 매개 과정이 수용자들의 새로운 공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박진우 2015, 97), 웹툰 또한 공공 기억의 틈새 매체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26년>은 웹툰이라는 독특한 장르와 형식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둘러싼 현재의 타자와 해후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첫째, 그 형식에 있어 만화는 사진이나 영화에서 구체화되는 리얼리즘 규범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과거의 이미지도 얼마든지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화의 경우 말과 이미지의 결합 관계는 사진보다 훨씬 심오하다. 텍스트는 이미지와 일체가 되어 말의 의미뿐 아니라 물리적인 외형을 통해서도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언어의 위상을 갖는다. 둘째, 만화라는 매체는 가볍게 읽는 만큼 독자층이 넓으며, 눈에 보이는 과거를 잊을 수 없는 이미지로 상상하고 재편성하여 새로운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청중의 확장력을 지닌다. 여기에 만화라는 장르가 다른 웹-콘텐츠가 가진 장점과 결합할 때, 상대적으로 짧고 쉽게 재생 가능한 웹툰의 특성상 ‘무한 확산’의 장점까지 지닌다.<sup>8)</sup> 셋째, 웹툰 일반이 매개하는 역사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에

---

**람들이 대중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기억할 때 형성된다**(Goodall and Christopher Lee 2014, 4-6).

- 8) 이상의 논의는 역사서술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모리스-스즈키(2006)의 통찰과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에 대한 김수환(2011)의 분석을 ‘새로운 언어’와



더하여, <26년>이라는 웹툰이 가진 장점을 미리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몇 논자들이 지적하듯, 강풀의 작품은 단단한 스토리텔링의 힘뿐 아니라 웹툰 특유의 스크롤 독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강현구 2007; 최을영 2012). 특히 장편 서사 웹툰으로서 <26년>은 사건을 경험한 행위주체들의 감정 서사와 동학을 어떤 점에선 영화보다 더 역동적인 기법으로 전달한다.<sup>9)</sup> 무엇보다 그의 작품이 채택한 ‘다중적인 화자의 관점’은 1인칭 화법을 넘어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들의 감정동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제2절에서는 <26년>이 자리한 역사사회적 조건을 한국 이행기 정의의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감정사회학적 고찰이 필요한 이론적 맥락을 밝힌다. 제3절에서는 ‘사건으로서의 5·18’의 제도적 청산 이후에도, ‘사람들의 세계’에서 재생산되는 관계적 행위주체들의 –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방관자, 지지자(방어자), 유족 2세대 등 – 감정동학을 <26년>을 매개하여 탐색한다. 제4절에서는 2·3절의 논의가 한국 이행기 정의에 어떠한 함축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토론한다.

---

‘새로운 청중’이라는 측면에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 9) 웹툰은 출판만화처럼 네모난 칸과 흐름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다. 웹툰의 특이한 감상방식을 들여다보면, 칸이란 개념 없이 스크롤바의 이동에 맞추어 그림도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형국이니 그것은 마치 영화처럼 동영상을 보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낸다(강현구 2007, 240).

## 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1) 한국 이행기 정의의 딜레마: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이 글이 주로 살펴볼 5·18은 한국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시공간대에 귀속된 유형적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압제하 정치적 폭력과의 대면이라는 과제 앞에서, 한국 이행기 정의 요구는 그간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일부로서 전개되어 온 '5월 운동'(정근식 2001)의 본격화로 나타났다. 5월 운동은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증언'을 통해 한국에서 사회적 기억연구를 배태시키고 발전시키는 '온상'이 되었고, 그간 누적되어온 분단 현대사의 묵은 과제들을 전면화하는 물꼬를 텃다.<sup>10)</sup> 5월 운동의 성과는 '광주 5원칙'으로 구체화되었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5·18의 이행기 정의는 딜레마를 드러내며 일단락되었다. '광주 5원칙'은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가해자 처벌이 명시되어 있는 등 강도 높은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것이었다(최정기 2006; 강성현 2014; 박현주 2015).<sup>11)</sup>

---

10) 탈/식민, 탈/냉전(분단) 그리고 탈/독재의 세 가지 중첩된 시공간대와 동형성을 갖는 한국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에 대해서는 정근식(2013)을 참고하라.

11)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은 ① 진상규명 ② 책임자처벌 ③ 명예 회복 ④ 배상 ⑤ 기념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지만, 이 중 광주 학살 사건에 대한 핵심 진상들은

5·18 이행기 정의 모델이 지닌 한계는 그간 ‘트라우마’의 문법 속에서 재조명 되어왔다. 5·18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정신적 고통 및 이를 뒷받침해주는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며, 그 결과 약 3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트라우마가 만성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오수성·신현균·조용범 2006; 최정기 2006; 강은숙 2012; 김보경 2014).<sup>12)</sup> 특히 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의 생애사를 ‘사회적 트라우마리즘’의 프레임으로 분석한 강은숙(2012)은 이들의 트라우마가 처벌 없는 과거청산 및 보상 과정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준다. 나아가 김보경(2014)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직적 부인의 전략을 개념화하였고, 이러한 부인이 민주화운동에서 발생한 외상 생존자들의 후유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진실의 은폐로 진정한 애도가 방해받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요 정서 중에 분노와 한이 심각한 점은 필연이다.<sup>13)</sup> 이들 연구는 이행기 정의의 사회적 맥락이 개인의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규명되지 않은 채 우회되었고, 일부 인사들의 처벌조차 사면을 전제로 한 처벌과 맞바뀌었다. 그리고 원상회복(rehabilitation)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형태의 금전 살포도 이루어졌다(강성현 2014).

12) 5·18 참가자들의 상이 후 자살자 비율은 10.4%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한국의 자살률 0.02%의 무려 500배에 달하는 수치이며(김명희 2012), 유족들의 자살 문제는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창립 배경이 되기도 했다.

13) 국의 연구에서 크메르루주(Khmer Rouge) 통치하에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캄보디아 생존자 중 진상규명이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PTSD 발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최현정 2015).

그러나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는 5·18 부인(denial)의 핵심 주체인 국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폭 넓은 부인의 문화 속에 편입된 다층적 행위자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2004년 무렵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인간의 고통을 가리키는 국제공통어이자 사회적 통념의 일부로 부상하면서, 살아남은 자들 또는 목격자의 생존자 증후군은 통상 의학적 프레임을 통해서만 인지되고 공론화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진단기준에서는 외상 사건 자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생존자들의 의미와 해석보다는 공포감이나 두려움, 또는 무력감을 느꼈는지와 같은 주관적 반응이 진단의 전제 조건이다. 의학적 진단명이 취하고 있는 증상중심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는 생존자가 다른 재난 희생자, 혹은 전체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죄책감, 부끄러움, 자기비하와 같은 상호주관적인 감정 경험이 의미 있게 고려되지 않는다(김명희 2015, 19).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상적 기억을 개인적이고 의학적인 문제로 다루어 왔던 역사는 역설적으로 피해자를 수동적으로 대상화하고, 다층적 행위자들의 공적 책임을 묘연하게 하는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다. 라쉬(C. Lasch)의 말을 빌리자면, “인과응보의 정의(正義)가 치료적 정의(正義)로 옮겨감에 따라, 도덕의 지나친 단순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바로 도덕적 책임감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1989, 269-270). 이것이 이 글이 이들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론적 접근을 끌어오는 이유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5·18이 남긴 사회적 고통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패러다임에 입각해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대비되는 패러다임이다. 여기에서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는 정의 회복의 주체로서 처벌이 아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인지, 회복을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간단히 말해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회복, 당사자들과 공동체의 관계회복을 강조한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회복적 정의 관념은 정치적 개혁, 재발방지의 보증, 체제의 이행, 피해자들의 권리신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의 배후에 자리한 책임의 문제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로컬리즘의 한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26년>에서 5·18 경험자들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학살을 명령한 사람과 관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서의 가능성은 복수(처벌)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복수의 현실적 수단이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결여된다면 용서할 기회조차 사라진다. 5·18 피해자들은 국가범죄로 인해 귀중한 가치(배우자·부모·자아)를 상실했으며, 나아가 국가가 범죄자의 처벌과정을 독점하고 피해자는 배제됨으로서 반사적으

---

14) 통상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나 르완다의 가차차 법정(Gacaca court)은 국가폭력을 겪은 사회에서 회복적 정의의 전례로 제시된다. 자세한 논의는 이재승(2014), 최현정(2015), 이영재(2012)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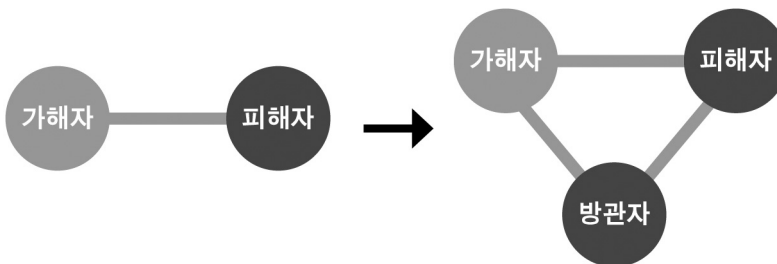
로 피해자는 구제와 회복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즉 <26년>에서 5·18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처벌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근본적으로 처벌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 불처벌(impunity)에 – 분노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복수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응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 공권력이 정치적 폭력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용서하겠다는 피해자들의 태도나 의향은 무망하다(이재승 2014, 175).

그런데 회복적 정의 모델과 응보적 정의 모델은 모두 피해자-가해자라는 이분법적 범주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피해자-가해자의 상호재생산에 관여하는 다층적 행위자의 범주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이 점이 필자가 5·18 부인 구조에 대한 ‘생태적 접근’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많은 외상 연구의 성과가 일러주듯, 외상에는 필연적으로 가해자-피해자-방관자의 구도가 존재하며 따라서 도덕적·정치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코언(2009)은 프로이트의 부인(denial)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가 인권침해에 눈감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제3자’나 ‘관찰자’라는 표현 대신에, ‘방관자’라는 표현을 쓴다. 방관자는 부인의 문화에 속한 개인 모두이다. 부인이란 외상의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눈감고 공포의 실체를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들기에, 방관자는 외상을 발생시키는 일부분이며 결국 ‘공모자’가 된다. 현대 사회 개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주목하지 못하는 동시대적 부인(contemporary denial)을 형성한다. 모른 척하거나, 믿지 않거나, 침묵하거나, 폭력에 순종하거나 이를 당연시하는 등의 부인 행위를 통해 ‘알

지만(know)', '시인(acknowledge)'하지는 않는다(코언 2009, 66-69; 최현정 2015, 184).

이 지점에서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고찰과 대응이 가해자-피해자 관계에만 주목하던 관행을 벗어나 제3항, 방관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생태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문재현 2012 참고). 예컨대 가해자-피해자 이분법의 개인주의적 접근 속에서 가해-피해는 일종의 순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가해-피해 관계가 재생산되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목격자가 경험한 죄책과 부끄러움은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화하는 실천적 동력이 될 도덕 감정이 될 수 있고, 사건의 부인과 회피의 국면에서 국가폭력의 재생산에 일조하는 방관자의 감정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법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가해자-피해자-방관자 관계를 사유할 수 있는 생태적 접근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개인적 접근과 생태적 접근



주: 두 그림은 문재현(2012, 16, 20)으로부터 원용하였다.

## 2) 감정에 대한 사회관계적 접근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전쟁과 인간』에서 노다(2000)의 통찰이 일러주듯,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 감정으로서 죄의식과 부끄러움은 해당 사회의 문화와 도덕규범이라는 ‘상대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시공간의 맥락 속에 자리한 관계적 행위자들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 연구(case study)가 의미를 갖는 까닭이다.

이행기 정의 과정의 감정생태계에 대한 탐구는 윌리엄스가 말한 ‘감정구조’ 논의에서 타당한 이론적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감정’이라는 말은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보다 정형화된 개념들과 구분된다. 이때의 감정은 생각과 대비되는 감정이 아니라 ‘느껴진 생각’이고 ‘생각된 느낌’이며, 현재적인 것에 대한 실천적 의식이다.<sup>15)</sup> 이러한 정의가 감정과 인지 사이의 이항대립을 해소하고 감정의

---

15) 감정은 논자와 맥락에 따라 emotion, affect, feeling, passion, sentiment 등 다양한 용례를 갖는다(김홍중 2013 참고). 이 글에서 감정은 인지와는 상대적인 층위 관계 속에서 어떤 대상과 관계 맺는 행위자(들)의 실천적 정향이 지닌 정서적 차원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 통상 감정과 인지는 둘 중 하나만이 행동을 틀 지우는 것처럼 대치되지만, 인지는 감정과 묶여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미 있거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오래 지속된 기분과 정서적 유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믿음과 이해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게 한다. 따라서 감정과 인지를 제로섬의 용어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상호작용과 결합을 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다(굿윈·폴레타 2012, 33). 뒤르케임에 대한 메스트로비치의 해석을 빌려 말하면, “1급 사회적 삶이 감정적이라면 2급 사회적 삶은 인지적이다(메



실천적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감정구조 개념은 감정을 개인 차원에 국한하여 서로 고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긴장관계에 있는가 하면 동시에 또한 특수한 내적 관계를 맺는 하나의 세트’로서 요소들의 관계와 역동(dynamics)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감정구조는 ‘한 시대의 문화’이자 곧 ‘경험의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윌리엄스는 감정구조를 정치경제와 그에 상응하는 마음의 열개라고 정의 내리면서 한 사회의 변화는 감정구조가 변화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와 같은 외면적 발전 못지않게 국민 내면의 의식 구조가 바뀔 때 진정한 혁명이 성취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서구 근대화의 역사는 기나긴 혁명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윌리엄스 2003, 190-191; 2007, 93).<sup>16)</sup>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관계적 행위자들의 정감적 결합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을 감정생태계라는 개

---

스트로비치 2014, 202).”

16)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여러 ‘비합리적인’ 정치문화는 21세기에 적합한 감정구조가 아직 한국사회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한국정치의 미래는 새로운 감정구조, 즉 새로운 정치권력과 경제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성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홍성민 2015 참고). 윌리엄스에 따르면 기나긴 혁명은 “인간과 제도를 변형시키는 진정한 혁명이다. 그것은 수백만 명이 활동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는 혁명이며, 공공연한 반동이나 관습적인 형식과 사상의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저지되는 혁명이다(윌리엄스 2007, 12-13).”

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 한편 윌리엄스의 ‘감정구조’는 뒤르케임의 ‘집합 의식(감정)’ 개념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연대를 사회학적 탐구의 중심 의제로 상정했던 뒤르케임 사회학에서 ‘감정’은 외삽적(外挿, extrapolation)인 요소에 머물지 않는다.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은 집합 의식(conscience collective)의 변동 과정으로 설명된다.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평균적 구성원들에게 공통적 믿음과 감정의 총체”이자 “사회적 정신적 유형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과 생존조건 및 발전 양식을 가지고 있다(뒤르케임 2012, 128).” 행위 주체들이 경험하는 감정 또한 이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사건의 경과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즉 “감정이 그것을 낳은 원인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동시에 그 원인의 유지에 기여한다(뒤르케임 2012, 153).”<sup>17)</sup> 따라서 실천에서 이성의 역할은 동시대인들이 자신들의 욕구,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Durkheim 1953, 54). 이러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감정생태계에 대한 성찰은 한국 이행기 정의의 재생산 국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열어줌으로써, ‘비합리적 정서를 합리적인 정서로 변형하는’ 비인지적인 형태의 설명적 비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17) 즉, 뒤르케임에게 감정은 과학적 탐구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피설명항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관점은 “감정은 과학적 연구의 주체가 되지만 과학적 진실의 기준일 수는 없다”는 언술에서 잘 드러난다(Durkheim 1982, 74).

### 3. <26년>의 감정생태계와 감정동학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26년>에 재현된 감정동학과 그 함의를 읽어내 보자. 앞서 말했듯, <26년>의 구성은 5·18 부인(denial)의 생태계에 연루된 다층적 행위자의 감정동학을 웹툰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활용해 적절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 1) 5·18 유족 2세대의 감정동학: 세대 간 트라우마 동학

<26년>은 주인공들로 하여금 5·18 학살자를 단호하게 처단하지 못한 국가를 대신하여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로 나서게 되는 과정을 기본 플롯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응보적 정의의 시도는 과거 계엄군이었던 김갑세와 유족 2세대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대기업 회장 김갑세는 아들처럼 키워온 사설 경호업체 실장 김주안과 조직폭력배 광진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심미진, 경찰 권정혁, 흥상 조각가 이치영을 불러 모은다. 서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이들은 5·18로 가족을 잃고 처참한 26년을 보내왔다. 시민군이었던 광진배의 아버지가 사살된 후 진배의 어머니는 민방위훈련 때마다 정신착란을 일으킨다. 입대해 진배의 군복을 보고는 칼을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남긴다. 진압군의 총에 맞아 죽은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던 심미진의 아버지는 '그 사람'의 집에서 화염병을 던지다 분신한다. 이들은 5·18이라는 사건이 남긴 역사적 트라우

마(historical trauma)를 가족이라는 친밀한 영역(intimate sphere)에서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피해자들’이다.



동시에 이들은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 최고책임자 ‘그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사건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설정된다. 이것이 그간 일방향으로 표상되어온 국가폭력 ‘피해자’로서의 유족이라는 공적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는 <26년>의 새로운 지점이다. 기존의 5·18 상징계가 은폐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유족들이 단지 피해자인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건의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역동적인

‘행위자’이기도 했다는 점이다.<sup>18)</sup> 이 점을 뒷받침하는 사건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은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해결의 전 과정(사건에 대한 증명, 진실 규명, 재판과정, 피해회복, 후속조치)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적인 지위를 의미한다. 즉 사건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가 보유한 개별적인 권리들의 일부나 집합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국민주권에 버금하는 사유로서 국가폭력과 대형 참사에서 피해자의 주권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직면하는 각 상황에서 피해자를 주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26년〉의 또 하나의 새로운 점은, 국가범죄의 수행자였던 기성세대의 죄책감이 유족 2세대들의 트라우마 동학과 조우함으로써 새롭게 생성되는 화해와 용서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자신의 부친을 살상한 직접적 가해자인 김갑세를 꺾진배가 ‘용서’하게 되는 과정은 김갑세의 진정 어린 반성과 참회를 전제로 하고, 그 또한 동일한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관계 속에서 인지하게 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이 때 김갑세의 죄책감과 유족 2세

18) 이에 대한 상세한 실증 연구는 김화숙(1999), 노영숙(2015)을 참고하라.

19) 근대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사상을 수용한 까닭에 피해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위축시켰다. 형사법의 합리화과정이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무력감과 소외감을 조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인권법에서 범죄 피해자의 지위강화는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이재승(2016) 참조.

대의 복수심을 매개하는 감정은 ‘그 사람’으로 상징되는 구조적 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그 안에 맹아적으로 잠재된 ‘정의’의 공통 감각이다.

분노는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타당한 유형의 감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온화의 덕을 갖춘 사람은 마땅한 때, 마땅한 상대에게, 마땅한 시간 동안 분노한다고 상징한다. 따라서 분노를 표출한 경우에 질문해야 할 것은 분노를 촉발한 사실이 정확했으며 그 속에 담긴 가치가 균형을 이루었는가이다. 즉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해악을 가한 자를 겨냥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복수극은 정의 담론의 실마리가 된다(니스바움 2015, 36; 이재승 2014, 173 참고). <26년>의 복수 플롯은 응보적 정의 없이 강요되는 가해자-피해자의 회복적 정의의 불가능성을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한국 이행기 정의의 딜레마에 대한 재·해결을 시도한다.

## 2) 가해자의 두 경로: 작용과 반작용

그러나 반성하는 가해자 김갑세와 피해자인 유족 2세대의 동맹과 연대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은 응보적 정의의 실현은, 다른 여러 힘의 개입에 따라 번번이 좌절의 과정을 겪는다. 대표적으로 <26년>의 두 유형의 계엄군 사례는 뚜렷한 대비 속에서 응보적 정의를 촉진하거나 때로는 저해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벡터(vector)로 등장한다. 이 힘을 드러내는 작중인물이 김갑세, 그리고 함께 5·18 시민군 진압에 투입되었던

마상열이다. <26년>은 양자가 살상 행위의 결과 경험한 유사한 형태의 죄책감이, 전혀 다른 경로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뚜렷한 대비 속에서 드러내 보여준다.

먼저 김갑세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며 ‘부끄러워하는 자다. 그는 지난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진짜 가해자를 찾아 처벌을 계획하고 피해자들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능동적으로 시도하며 참회와 사죄의 길을 걷는다. 그는 자신의 가해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괴로웠네 … 차라리 …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더라면…” (강풀 2006)

“부끄러웠소 …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 죽어서 당당한 자와 살아서 부끄러운 자 …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소.” (강풀 2006)

부끄러움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반성과 사죄의 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김갑세는 그가 용서받고자 했던 희생자의 자녀들로부터 동등한 ‘사건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는다.<sup>20)</sup>

반대로 26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전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재등

20) 작품 말미에서 유족 2세대인 홍상 조각가 이치영이 말하듯 “당신은 … 아니었어요… 당신도 … 피해자였어요… 당신은 내게 죄를 지었지만 … 나는 당신을 … 용서합니다(강풀 2006).”의 인정과 용서는 기존의 가해-피해 관계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새로운 연대관계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모멘트가 된다.



장하는 마상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해자'이다(오른쪽 그림). 마상열은 5·18 직후 - 계엄군으로 아이 엄마를 사살한 -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김갑세와 동일하게 죄책감을 경험하고 자살까지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자





신의 행위가 “명령대로 했을 뿐”인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합리화’하는 경로를 선택한다.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한 충성을 곧 ‘국가’에 대한 충성과 동일시하고, 자신이 살상한 희생자가 곧 “폭도”이고 “간첩”이라고 스스

로를 정당화함으로써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경로를 걷는다.

두 가해자의 경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홀로코스트 이후의 사회학을 주창하는 바우만(2013, 272-275)을 끌어오자면, 마상열의 감정 역동은 대리인 상태(agenetic state)로 일정 정도 설명된다. 행위자의 동의에 의해 책임이 상관의 명령권으로 이전되면 행위자는 대리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리인 상태에서 행위자는 상급 권위에 의해 규정되고 감독된 상황에 완전히 조율되어 있다. 상황에 대한 이런 규정에는 행위자를 권위의 대리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컨대 “이 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의 모든 과거가 잘못된 것이기에, 이분은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마상열의 내러티브가 보여주듯, 더 큰 권위로 책임을 회피·이전함으로써 가해행위에 대한 자신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부인(denial)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대리인 상태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추상적 범주화를 통한 ‘얼굴 지우기(effacing face)’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얼굴 지우기는 양자의 사회적 거리를 강화함으로써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의 부류에서 피해자를 내쫓는다. 이 공간에서 개인적 상호작용의 영역은 증발되기에, 추상적 범주로서의 ‘타자’는 내가 아는 ‘타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게 된다. 단적으로 마상열이 그러했듯, 희생자를 “폭도”와 “간첩”으로 정신적으로 ‘분리(segregation)’시키는 것이다. 적으로 공표된 자들은 오직 기술적이고 도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만 평가되고 선별적으로 분류되기에 일상적인 만남에서 제거된다. 바우만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범주적 살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물

리적·심리적 거리의 효력은 가해 행위의 집단성과 관료적 분업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관료조직은 목적의 지시에 대한 권위를 통해 그러한 경향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집행자로, 대상들이 피해자로 바뀌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바우만 2013, 265, 356).<sup>21)</sup>

이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가 <26년>의 최 형사라는 작중인물이다. 공안 경찰 최성태는 악명 높기로 소문난 고문기술자였다. 아무런 의심 없이 대공분실로 밀려드는 빨갱이들을 고문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며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후 문익환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국가가 자신에게 시키는 일이 옳은 일인지 의심하며 정치사상범을 잡는 업무 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지만, 그의 회의는 ‘직업윤리’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문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시작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질문은 “나는 경찰”이며 “이것이 내가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합리화에 봉쇄됨으로써 ‘그 사람’을 단죄하려는 시도를 방해하는, 방관자이자 공모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역할 수행에 반작용하는 힘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5·18 유족 2세대이자 경찰직에 몸담고 있던 권정혁의 사례이다. 그 또한 최 형사와 마찬가지로

21) 여기에는 의학적 범주에 의한 희생자화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종전 후 많은 정신과의사들에게 명성과 부를 안겨 주었던 ‘생존자의 죄책감’이라는 진단명이 한 예이다.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진단에서 너무나 확실히 드러났던 ‘죄책감’의 측면은 ‘생존 콤플렉스’라는 진단명에 의해 점차 지워지고, 자기 보존을 위한 자기 보존에 대한 인정만 남게 되었다(바우만 2013, 385).

직업윤리와 가족윤리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최 형사와 달리, “나는 왜 경찰이 되려고 했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경찰직을 포기하고 복수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로 변모한다.

바우만(2013)의 논의는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에 상당 부분 기반해 있다. 밀그램의 실험을 통해 그는 피해자와 가해 집행자 사이에 자리한 ‘인간관계라는 함수’를 건져낸다. 그의 연구 결과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꺼이 잔인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과 희생자의 친근성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있고 지속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집행자들 간에는 상호 의무감과 연대감이 형성된다. 역으로 실험 참가자들이 피험자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잔인해지기 쉽다. 그가 밀그램의 실험에서 건져낸 중요한 통찰은, 모든 도덕적 행위의 기초 요소인 책임성이 타자와의 근접성(proximity)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다. 도덕적 충동이 무화되는 것은 물리적·정신적 고립을 통해 근접성이 손상될 때이며, 이를 통해 도덕성은 침묵한다. 수천 명의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는 방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회적 분리 과정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논의는 마상열의 동조 행위를 일정정도 설명하지만, 이와 상이한 경로를 걸은 김갑세의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는 악의 사회적 장치가 행위자의 자율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대리인 상태의 역할 수행을 거부했던 드문 선례도 반

드시 존재했다 말할 뿐이다.

평소에는 법에 고분고분하고 겸손하며 반항적이지 않고 모험적이지도 않은 보통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맞서 결과는 잇은 채 양심을 우선에 둔다. 이는 전지전능하고 사악한 권력에 도전하고 극형을 감수하면서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들을 구하고자 했던, 흠어져서 단독으로 행동했던 드문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다. 맞서 싸울 기회가 부재한 상태에서 잠자고 있던 그들의 도덕적 양심은 사회적으로 생산되어야만 했던 비도덕(성)과는 달리 진정으로 그들 자신의 개인적 속성이었다(바우만 2013, 281-282).

하지만 동일한 역사적 사건과 역할 수행을 경험하고도 상이한 길을 걸었던 김갑세와 마상열의 경로가 단지 역사적 우연과 개인의 선택에 의존할 뿐이라면,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법적 순환 구조를 온전히 뚫고 나올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 지점에서 밀그램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피해자와 기꺼이 동맹하기를 결단했던 가해자의 대리인, 김갑세의 전향적인 행위동학을 이해할 단서를 보다 촘촘하게 찾아볼 수 있다.

희생자의 고통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희생자에 대한 존재감을 갖는다면, 즉 희생자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면 피험자는 복종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밀그램 2009, 65. 강조는 필자).

밀그램(2009, 65-73)의 복종실험은 이 실험장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함

수를 섬세하게 고려함으로써, 이 실험장에서 벗어날 실마리 또한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감’ 단서이다. 희생자의 고통과 관련된 시각적 단서들은 피험자의 공감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피험자는 희생자의 경험을 좀 더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공감 반응은 그 자체로 불편하기 때문에, 피험자는 정서적 흥분을 야기하는 이러한 상황을 종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둘째, 부인의 메커니즘은 희생자에 대한 ‘인지’ 영역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근접성 상황에서 희생자가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메커니즘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서로 공유한 영역’이다. 희생자가 자신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때 피험자는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고, 이것이 공격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행위에 관한 경험의 통일성’이다. 고통을 야기한 행위와 그 희생자를 좀 더 가까이 있도록 하는 접촉-근접성 조건에서는 경험의 통일성이 확보된다. 다섯째, 이러한 공간적 조건에서 희생자의 격렬한 저항과 항의는 피험자의 전기충격을 약화시킨다. 간단히 말해 희생자와 친밀감이 형성될 물리적·정서적·인지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복종행동이 감소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나아가 복종행동에 저항할 희생자-실험자 동맹의 가능성도 열린다는 것이다.

피험자와 좀 더 가까이 있을 때, 희생자는 그와 동맹을 맺어 실험자에게 맞서기가 더 쉬워진다. 피험자는 더 이상 혼자서 실험자를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협력해서 실험자에게 저항하기를 갈망하는 동맹군이 피험자와 가까이 있게 된다. 따라서 몇몇 실험 조건에서 공간적 상태의 변화는 잠정적으로 동

맹관계를 변화시킨다(밀그램 2009, 73).

실제 <26년> 도입부, “너는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말이다”라는 시민군 희생자(곽진배의 아버지)와 나는 짧고도 강렬한 대면적(interpersonal) 대화는 김갑세의 생애사적 반성을 추동하는 양심의 중심부에 자리한다. 마찬가지로 작품 말미에서 마상열 또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로서 심미진의 삶과 생생하게 대면하면서, 진심 어린 속죄를 하는 전향적 경로를 보여준다.<sup>22)</sup> 이러한 방식으로 <26년>은 그 전반에 걸쳐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남긴 고통의 무게와 깊이에 대한 관계적 행위자들의 공감의 자장이 동심원적으로 확대되는 전개 구조를 펼쳐낸다.

### 3) 목격자-방관자-방어자의 감정동학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목격자에서 방관자로, 그리고 지지자(방어자)로 전환한 깡패 두목 안수호의 사례이다. 많은 폭력 연구가 일러주듯 방관자들은 폭력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폭력 행위자들에게 침묵은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방관자의 침묵은 말없는 승인이나 마찬가지로이기에, 침묵하는 다수는 폭력이 활개 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한

---

22) 물론 이러한 전향적 행위에는 동일한 폭력의 가해자였던 김갑세가 보여준 다른 삶(사죄와 용서)의 가능성이 개입한다.

다.<sup>23)</sup> 따라서 사회운동의 성패는 가해-피해 관계의 재생산에 개입하는 제3항, 이 방관자들의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방관자가 피해자의, 그리고 저항하는 행위자의 지지자(방어자)로 개입할 때, 피해자-가해자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는 변화하게 된다. 5·18의 목격자이자 오랜 시간 방관자였던, 아울러 추후 박진배의 복수를 돕는 방어자(지지자)로 변화한 깡패 두목 안수호의 사례는 <26년> 전반의 응보적 정의의 시도 과정에서 비교적 후반부에 등장하는 함수이다

“주먹질에 자신이 있었던” 안수호가 1980년 당시 도청에의 참여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체험했던 공포,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금남로를 대낮에” 걷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회피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그는 국면적 방관자였을지 몰라도 생애사적 방관자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도청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 또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삶을 연명해야 했던 폭력현장의 목격자이자 5·18의 생존자이며,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시달렸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본 구성에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과거에 제 아무리 용감하고 자원이 풍부했던 사람일지라도 일정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생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비판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상 사건의 후

---

23) 구경꾼들이 말없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폭력 행위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할 수 있다(조프스키 2010, 164-165).





유증이다. 특히 죄책감은 생존자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죽음을 목격했을 때 특히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sup>24)</sup> 이러한 유형의 죄책감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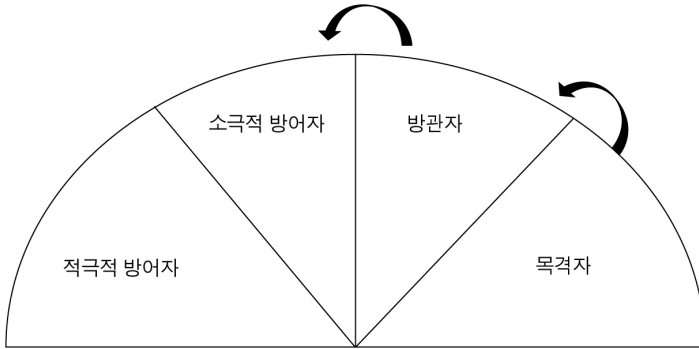
24) 방관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에는 뿌리 깊은 ‘목격자 죄책감’이 있다. 이것은 ‘생존자 죄책감’과 유사하다(허먼 2007, 245 참고).

는 살아있다. 고로 죄가 있다. ... 친구가, 지인이, 모르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는 아포리아의 공식을 갖게 된다(이갑벤 2012, 134).

이러한 형태의 죄책감은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하며, 공격성의 한계를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창조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반면 죄책감과 유사하지만 부끄러움은 스스로 안에 내면화된 타인들의 태도, 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랑 및 존중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내면 안의 자동장치의 작동을 경유한다(너스바움 2015, 381; 엘리야스 1999, 383 참고). 안수호의 죄책감은 타자의 생명에 연루된 것이며, 동시에 그의 부끄러움은 겁쟁이었던 자신을 향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 사건’의 유산으로 함께 공존해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죄책의 감정이 부끄러움의 감정으로 전향되는 모멘트는 그와 친밀한 거리에 있는 짝진배의 결단, 즉 피해자의 주체화에 의해 촉발된다. 동시에 방관자에서 방어자(지지자)로의 그의 위치 전환은 그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복권하면서, 옹보적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힘으로 전화한다. 안수호의 사례가 드러내는 목격자-방관자-방어자(지지자)의 역동적인 스펙트럼을 거칠게 그려보면 <그림 2>와 같다.

이제까지 살펴본 세 유형적 사례 - 피해자-가해자(대리자) 동맹, 가해자(대리자)의 반성과 사죄, 목격자-피해자(동시에 저항자) 동맹 - 에서 ‘부끄러움’은 사건의 국면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감정기제로 부상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 실재적 함의를 갖는다. 5·18의 집단

〈그림 2〉 생태적 접근 2: 목격자-방관자-방어자 스펙트럼



적 정서 체험을 둘러싼 많은 연구가 알려주듯,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은 5·18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촉발한 도덕의식의 표현이며, 한국 민주화 과정을 추동한 원동력이기도 했다(은우근 2012 참조). 〈26년〉의 작중 인물에게 부끄러움이 그 사건이 남긴 생애사적 과제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실천적 동력이 되었듯, 부끄러움은 과거 정치적 폭력이 남긴 유산을 극복해가는 역사적 반성의 동력이자 다른 삶의 방식을 기획하게 하는 성찰적 범주라 할 수 있다.<sup>25)</sup>

25)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규정하고 구조화하는 범주로서 부끄러움에 대한 사회철학적 성찰로는 정명중(2016) 참고. 바우만 또한, 가공할 만한 역사적 경험의 도덕적 의미를 회복하는 실천적 동력으로서 부끄러움의 지위에 주목한다(바우만 2013, 339).

#### 4. 토론 및 전망: 역사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

이러한 방식으로 <26년>은 5·18 부인의 생태계에 대한 풍부하고 정 치한 문화적 재현을 통해 역사적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타자의 얼굴 과 그와 연루되어 있는 관계적 행위자에 대한 성찰적 공감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물론 <26년>은 텍스트 바깥에 위치한 현실의 행위자들의 세계에 대한 사실적인 재현은 아니며 다분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삶에 대한 모든 재현이 실제의 사회적 구성 과정에 개입하듯, <26년>은 사건사 중심의 기존 역사 서술이 다루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성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폭력의 재생산 국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성의 회색 지대(gray zone)<sup>26)</sup>의 작동방식에 대한 통찰을, 시공간을 가로질러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을 교통하고 있는 감정구조에 대한 징후적 독해의 가능성을, 이를 통해 피해자-가해자의 틀로 쉽사리 포착될 수 없었던, 때로는 공모하고 때로는 저항하는 행위자들과 새로운 대면과 대화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가 한국 이행기 정의 과정에 시사하는 이론적·방법론적 함의와 과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6년>은 5·18 책임자 처벌의 과제가 결국 현실정치로는 해결

---

26) 회색 지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면서 범죄 체제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평범하고 모호한 사람들’로 채워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레비 2014 참고).

되지 않고 2세대 자녀들의 응보적 정의를 통해 재·해결의 국면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딜레마로부터 출발했다. 동시에 <26년>은 응보적 정의의 참된 실현이 정치적 폭력에 연루된 사회구조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고통을 야기한 원인에 대한 구조적 성찰에 입각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아울러 일러준다. 이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연동되어 있는 중첩된 과제임을 말해준다. 본디 정의(justice) 개념이 해당 국면의 정치적 역관계와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구성되는 것이라면(최정기 2006, 4), 부인의 문화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26년>이 역설하는 피해자-사회 중심의 진실규명과 정의 수립의 경로와 가능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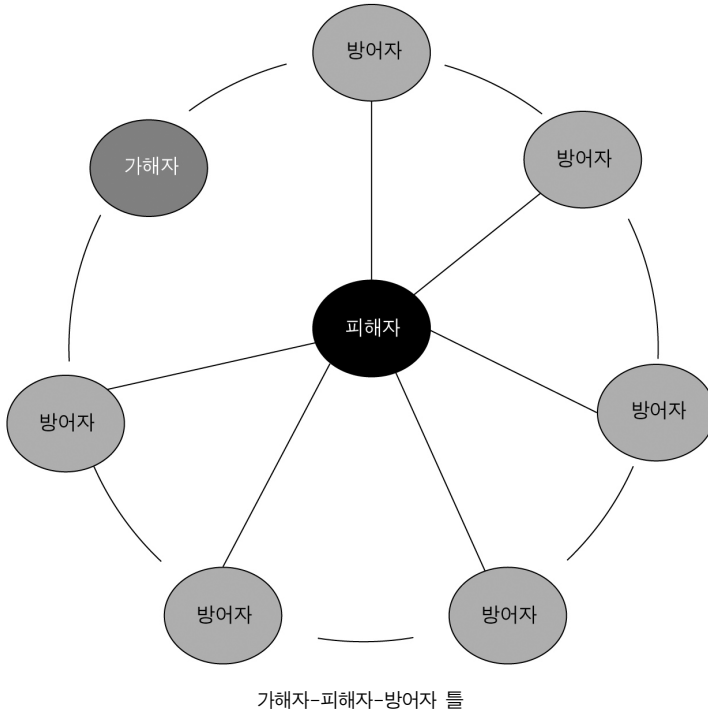
이 가능성을 공동체 기반의 이행기 정의 모델로 잠정적으로 개념화하여 <그림 3>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sup>28)</sup>

이와 같은 구상에서 피해자-방어자의 동맹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감정기제는 분노와 정의, 부끄러움과 공감을 매개로 한 연대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공감’은 정서적인 동시에 인지적인(cognitive) 것이며, 관계적인 동시에 설명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관계

27) 피해자-사회 중심의 진실규명과 정의 수립에 대한 제안으로는 강성현(2014)을 참고하라.

28) 이 그림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생태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문재현(2012)의 틀을 재구성한 것이다. 문재현(2012, 23)의 ‘보살핌의 원’과 달리 이 모델에서 피해자와 방어자는 가해자의 폭력을 고립시키는 동맹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3〉 생태적 접근 3: 공동체 기반의 이행기 정의 모델



적·정서적인 공감과 인지적·설명적 공감이 발현되는 과정은 곧 승화<sup>29)</sup>의 과정이다. 즉 분노와 부끄러움의 감정이 사회적 연대와 정의 회복을 향한 더 큰 공동체의 집합적 노력 속에 통합될 때 승화의 감수성은 발

29) 프로이트에 따르면, 승화는 자기방어기전의 한 형태로 대리 대상이 더욱 높은 문화 목표로 나타날 때의 치환이다(프로이트 1997).

현된다. 이렇게 볼 때 정치적 폭력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공동체의 감각, 즉 정의의 공동체의 발현인 사회성(sociality)과 연대성(solidarity)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회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장 거대하거나 가장 부유해서가 아니라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잘 조직화되어 있어서이며, 가장 좋은 도덕적 구성을 갖고 있어서이다.<sup>30)</sup>

둘째, 그러나 이러한 연대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도덕적 무관심의 영역에서 드러남(appearance)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재현의 과정을,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해왔던 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정의해가는 담론 과정, 동일한 경험을 ‘공통의 경험’으로 해석해가는 담론적 과정”을 매개로 한다(사이트 2009, 38). 즉 무관심이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인지적이고 도덕적인 함수 관계의 문제라 할 때, 그 ‘관계’에 대한 성찰을 매개하는 공공 기억의 방법론적 함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 기억의 한 형태로서 웹툰 <26년>은 5·18 부인(denial) 구조에 상호 연루되어 있는 관계적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끝나지 않은 5·18’의 현재성에 대한 성찰적 공감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열린 구조로 끝을 맺은 그 결말 또한 이행기 정의가 종결되지 않는 과정임을, 공감의 윤리가 궁극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타자(들)와의 지속적인 대면을 통해 수행

30) 자세한 논의는 뒤르케임(1998: 142) 참조. 이것이 곧 뒤르케임이 도덕적 아노미와 지적 아노미의 뿔 수 없는 연관을 지적하며 ‘유기적 연대’와 ‘사회성’의 회복을 그토록 논변했던 맥락이기도 하다.

되는 변증법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드러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부터 과거에 대한 지식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넘어선다는 점을, 역사 자체가 해석적인 차원과 함께 정서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감정과 행동을 형성하며, 세상에서 행동하는 체험에 의해 만들어진다.<sup>31)</sup> 아울러 역사적 지식은 시대와 함께 변화할 뿐 아니라, 그것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미디어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폭력을 보급하고 부인(denial)의 문화를 확대·재생산하지만, 거꾸로 미디어는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기억 사이에 자리한 폭력의 파편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공적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역사적 반성의 매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공 기억의 매체로서 <26년>의 대중적 성공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적 지식을 넘어 사건과 사람, 그 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공동체에 전달하고 재현하는 ‘매개자’, 즉 수행 집단(carrier group)의 교량적 역할과 재현의 정치가 역사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역사 서술과 재현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영역, 즉 역사적 지식이 경합하고 소통하는 타동적 차원(transitive dimension)<sup>32)</sup>에 대한 발본적 성찰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2006~~

---

31) 그러하기에 과거에 대한 지식이 감정이나 아이덴티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며, 그러한 정서의 원인이거나 거기에 포함된 함의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모리스-스즈키 2006, 41-43, 325 참고).

32) 역사적 지식은 그 대상 자체를 지시하는 자동적 차원(intransitive dimension)과 지식 속에 표현된 대상을 지시하는 타동적 차원(transitive dimension)을 동시에 갖는



## 참고문헌

- 강은숙. 2012. “5·18시민군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 과정.” 『기억과 전망』 통권 26호. 269-308.
- 강성현. 2014. “과거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둘러싼 쟁점과 평가.” 『역사비평』 통권 109호. 62-93.
- 강풀. 2006. 『26년』. 다음 속 만화세상(<http://webtoon.daum.net/webtoon/view/kangfull26> 2016/03/16 접속).
- 강현구. 2007. “강풀 장편만화 스토리텔링의 경쟁력.” 『인문콘텐츠』. 제10호. 235-261.
- 굿윈, 제프·제임스 제스퍼·프란체스카 폴레타(Jeff Goodwin, James M. Jasper, & Francesca Polletta) 엮음. 2012. 『열정적 정치(Passionate Politics)』. 박형신·이진희 역. 한울아카데미.
- 김동춘·김명희·강은숙·최현정·이재승·정진주·김원석·김재민·곽사진·김보경. 2014.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 김명희. 2015. “세월호 이후의 치유: 제프리 알렉산더의 외상 과정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19권. 11-53.
- \_\_\_\_\_. 2012. “한국사회 자살현상과 자살론의 실재론적 해석:宿命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96호. 288-327.

---

다. 이 개념은 역사적 지식이 존재론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을 아우른다는 점을, 나아가 역사 서술을 둘러싼 사회적 활동, 즉 역사적 지식의 타동적 차원이 현존하는 역사 과정에 변증법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에컨대 최근 대학과 학계 중심의 전문적 학술 연구의 상대개념으로 제안된 ‘공공 역사’(이동기 2016)의 아이디어도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식의 자동적·타동적 차원의 구분에 대해서는 바스카(2007, 57-61)를 참고하라.

- 김명희·김왕배 엮음. 2016.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 김보경. 2014. “누가 역사를 부인하는가: 5·18 과거청산 부인의 논리와 양상.” 김동춘·김명희·강은숙·최현정·이재승·정진주·김원석·김재민·곽사진·김보경.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328-366.
- 김수환. 2011.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잉여에서 병맛까지.” 『탈경계 인문학』 제9집. 101-123.
- 김화숙. 1999. “여성의 사회적저항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여성학논집』 제16호. 320-322.
- 김홍중. 2013. “사회적인 것의 합정성(合情性)을 찾아서: 사회 이론의 감정적 전환.” 『사회와 이론』 제23집. 7-48.
- 너스바움, 마사(Martha Nussbaum). 2015.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 노다, 마사야키. 2000. 『전쟁과 인간』. 서혜영 역. 길.
- 노영숙. 2015. “오월어머니집 형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뒤르케임, 에밀(Émile Durkheim). 2012. 『사회분업론』. 민문홍 역. 아카넷.
- \_\_\_\_\_. 1998. 『직업윤리와 시민도덕』. 권기돈 역. 새물결.
- 라쉬, 크리스토퍼(Christopher Lasch).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최경도 역. 문학과 지성사.
- 레비, 프리모(Primo Levi). 2014.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역. 들베개.
- 문재현. 2012. 『학교 폭력 멈춰!』. 살림터.
- 메스트로비치, 스테판 G.(Stjepan G. Meštrović). 2014. 『탈감정사회』. 박형신 역. 한울아카데미.
- 모리스-스즈키, 테사(Tessa Morris Suzuki). 2006. 『우리 안의 과거』. 김경원 역. 휴머니스트.
- 밀그램, 스탠리(Stanley Milgram). 2009. 『권위에 대한 복종』. 정태연 역. 에코리브르.

- 바우만, 지그문트(Zygmunt Bauman). 2013.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준 역. 새물결.
- 바스카, 로이(Roy Bhaskar). 2007. 『비관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이기홍 역. 후마니타스.
- 박진우. 2015. “재난과 미디어 매개, 그리고 공감의 문화정치.” 『인지과학』 제26권 1호. 97-123.
- 박현주. 2015. “한국 이행기 정의의 딜레마: 세 가지 사례의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이토 준이치. 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에서 아렌트까지』.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이음.
- 아감벤, 조르조(Giorgio Agamben). 2012.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 새물결.
- 엘리아스, 노르베르트(Norbert Elias). 1999. 『문명화 과정II』. 박미애 역. 한길사.
- 오수성·신현균·조용범. 2006. “5·18 피해자들의 만성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제25권 제2호. 59-75.
- 윌리엄스, 레이먼드(Raymond Williams). 2007. 『기나긴 혁명』. 성은애 역. 문학동네.
- \_\_\_\_\_. 2003.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역. 경문사.
- 은우근. 2012.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5월민중항쟁과 광주·전남 가톨릭교회.” 『신학전망』 제179호. 191-240.
- 이동기. 2016.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제31호. 119-142.
- 이영재. 2012.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1호. 121-151.
- 이재승. 2016.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민주법학』 제60호. 145-179.
- \_\_\_\_\_. 2014. “화해의 문법: 시민정치가 희망이다.” 김동춘·김명희·강은숙·최현

- 정·이재승·정진주·김원석·김재민·곽사진·김보경.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  
민국』. 역사비평사. 165-190.
- \_\_\_\_\_. 2010. 『국가범죄』. 엘피.
-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  
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제2호. 347-394.
- \_\_\_\_\_. 2001. “청산과 복원으로서 5월운동.” 광주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민중항쟁사』. 653-679.
- 정명중. 2016. “부끄러움의 성찰성을 위한 시론.” 『감성연구』 제12권. 5-30.
- 주재원. 2015. “매체 서사로서의 역사와 집합기억의 재현.”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1호. 9-32.
- 조프스키, 볼프강(Wolfgang Sofsky). 2010. 『폭력사회: 폭력은 인간과 사회를 어  
떻게 움직이는가』. 이한우 역. 푸른숲.
- 최유빈. 2012. “‘26년’ 그린 이유? 5·18에 ‘문화적 처벌’을 내리고 싶었다.” 한겨레  
신문. 2012/11/04. 28
- 최을영. 2012. “강풀: 금기를 정조준할 수 있는 대중만화가.” 『인물과사상』 통권  
176호. 55-72.
- 최정기.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광주민주화운  
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4권  
제2호. 3-22.
- 최현정. 2015. “PTSD 시대의 고통 인식과 대응: 외상 회복의 대안 페러다임 모  
색.” 『인지과학』 제26권 제2호. 167-207.
- 코언, 스탠리(Stanley Cohen). 2009.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  
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조효제 역. 창비.
- 프로이트, 지그문트(Sigmund Freud). 1997. 『정신분석입문』. 손정수 역. 배제서관.
- 허먼, 주디스(Judith Herman). 2007.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역. 플래닛.

홍성민. 2015. “감정구조와 대중정치학.” 『정치사상연구』 제21집 1호. 9-34.

Casey, Edward, S. 2004.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in K. P. Pillsps, Browe, Stephen, & Biesecker, Barbara, eds. *Rhetoric, Culture, and Social Critique: Framing Public Memory*.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7-31.

Durkheim, Émile. 1982.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tr. by W. D. Halls. NY: The Free Press.

\_\_\_\_\_. 1953. *Sociology and Philosophy*. tr. by D. F. Pocock. London: Cohen & West Ltd.

Goodall, Jane and Christopher Lee, eds. 2014. *Trauma and Public Mem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Halbwachs, Maurice. 1980[1925]. *The Collective Memory*. trans. by F. Ditter & Ditter. New York: Harper Colophon V Y.

Leebaw, Bronwyn. 2011. *Judging State Sponsored Violence*. Cambridge: Imagining Political Change.

## Case Study on the Emotional Dynamics of the Transitional Justice

Exploring the Emotional Ecosystem of Denial  
Surrounding the May 18th Movement via the Webtoon <26 Years>

Kim, Myung Hee

Konkuk University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prelude to the movement for the reconcile the past, requires a new historical communication methodology due to the challenge of historical revisionism and the culture of denial. This paper examines the webtoon <26 Years> to explore the emotional dynamics between relational actors reproduced in the culture of denial surrounding the May 18th Movement and it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The ecological approach has been introduced and suggested as an analytic fram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individualistic approach based on the existing offender-victim dichotomy in order to consider the multi-layered range of actors, including the bereaved families (victims) of the May 18th Movement, offenders, witnesses, bystanders and defenders.

The webtoon, <26 Years> illustrates how the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May 18th Massacre was not realized politically, but how the solution could only be found in the retributive justice of the second generation of victims. At the sametime, the webtoon also emphasizes that the retributive justice could only be realized through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and solidarity that were destroyed in the May 18th Massacre. This process is based on the reflection of socio-structural actors, implying that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are not contradictory but interconnected and overlapping tasks. Next, as a form of public memory, <26 Years>, sets the stage for sympathetic on an “unfinished May 18th Movement” by expanding the understanding of those interconnected with the culture of denying the May 18th Mov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transitional justice is the dialectic process carried out via continuous meeting with other(s) suffering. The webtoon <26 years> reveals that the role of a mediator (via a carrier group) communicating and reproducing an truth between incident and persons, and revealing about cultures of denial is a critical next step in historical communication.

■ **Keyword:** Transitional Justice, Webtoon “26 Years”, Historical Communication, Public Memory, Emotional Ecosystem in Denying The May 18Th Movement

투고 : 2016/3/31    심사 : 2016/4/25    확정 : 2016/5/20